박세영 “부모님마저 ‘저런 나쁜…’ 화내셨죠”

‘내 딸 금사월’ 악녀 오혜상 역 열연

하도 욕을 먹어서 이젠 배가 부를 정도 ‘장보리’ 연민정과 다른 느낌 내고 싶다

“제2의 연민정이요? 글쎄요….”

출생의 비밀을 간직한 두 여자의 뒤바뀐 운명, 그들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복수와 음모 등의 이야기로 안방 시청자들을 사로잡은 MBC 주말드라마 ‘내 딸 금사월’. 시청률 30% 돌파를 목전에 둔 이 드라마의 흥행을 이끄는 주인공은 연기자 박세영(27)이다.

극중 오혜상 역을 맡은 박세영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악녀 중에 악녀’다. 박상원의 친딸 행세를 하다가 거짓임이 드러나자 자살하는 시늉을 하며,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악을 쓰는 캐릭터다. 박상원의 친딸인 백진희를 위험에 빠트리고, 자신의 거짓말을 덮기 위해 또 다른 거짓을 꾸미기 바쁘다.

이렇게 악녀 캐릭터를 맡다보니 박세영은 어딜 가도 욕을 먹는다. 각종 연예관련 인터넷 게시판과 SNS에서는 “천하의 나쁜×” “교활하다” “너도 인간이냐”라는, 입에 담기도 민망한 욕설과 비난의 글들이 넘쳐난다. 하도 욕을 먹어서 “배가 부를 정도”다. “속상하지만 이제는 그런 반응을 이해한다. 부모님께서 드라마를 보시더니 ‘우리 딸 나쁜 짓 하러 돌아다니느라 바쁘네’라며 고생하는 걸 이해해주시다가도, 어느 순간엔 시청자의 입장에서 ‘저런 나쁜!’이라며 발끈하신다. 하하!”

박세영은 극 초반 악역에 대한 부담으로 울기도 많이 울었다. 대본을 쓰는 김순옥 작가의 전작인 ‘왔다 장보리’ 속 악역 이유리와도 비교대상이 되어 말 못할 부담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도 많았다.

“악역에 처음 도전하다보니, 잘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앞섰다. 그게 잘 안된 것 같아 한동안 힘든 시기를 보냈다. 이제는 많이 내려놓았다. 작가와 PD가 ‘왔다 장보리’ 속 연민정과 전혀 다른 캐릭터라고 설명해주셨다. 세고 강한 캐릭터가 아니라, 사랑받고 싶어서 발버둥치는 아이다. 때로는 약한 척도 하는, 한마디로 ‘내숭의 여왕’이다. 센 악역과 그 중간 사이에서 고민을 많이 했다.”

그의 말처럼 박세영의 캐릭터를 단순히 ‘제2 연민정’이라는 시선으로만 볼 게 아니었다. 그도 “비슷한 악역 느낌을 내고 싶지 않았다”고 당차게 말했다. 그리고 그는 일일이 사람들의 반응을 신경 쓰다가는 자신이 생각한 연기를 펼칠 수 없다는 마음에 “참고는 하되, 중심을 잡아가자”고 결심했다.

박세영은 드라마를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딱 하나만 생각하고 있다. “잘한다, 못 한다”라는 반응은 드라마가 끝날 때까지 잠시로 미뤄두고, “재미있게, 즐겁게 연기하자”라는 마음 하나다.

“50부작에서 이제 절반 왔다. 아직 갈 길이 멀다. 만족하지는 않지만, 한 회씩 마쳐 가면서 생각한대로 캐릭터가 잘 표현되면 ‘잘 하고 있구나’ 느끼게 된다. 박세영이 아닌 극중 오혜상이라는 캐릭터 뒤에 숨어서 사는 재미도 쏠쏠하다.”

박세영은 이제 연기 3년차다. 그의 말대로 “갈 길이 머니” 뻔하지 않은 신선한 연기로 “오래도록 연기자로 남고 싶다”고 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연기 3년차인 박세영은 ‘내 딸, 금사월’로 처음 악역에 도전하며 부담도 느끼지만, ‘좋은 연기자’를 위한 산 경험을 하고 있다. 그는 “신선한 연기로, 오래도록 배우로 남고 싶다”고 소망했다. 사진제공 | 후너스엔터테인먼트

문근영, 절친 신세경에게 보낸 ‘특별한 선물’

‘육룡이’ 촬영현장에 간식차량…우정 뽐내

연기자 문근영(28)과 신세경(25)의 진한 우애가 방송가에서 화제를 낳고 있다.

두 사람은 연예기획사 나무엑터스에서 한 솥밥을 먹는 단순한 동료 배우를 넘어 평상시에도 자매처럼 지내며 서로를 격려하며 힘을 북돋아주고 있다. 서로에 대한 이 같은 애정은 신세경이 주연한 SBS 월화드라마 ‘육룡이 나르샤’ 촬영 현장에서도 나타났다.

26일 소속사에 따르면 문근영은 25일 신세경이 한창 촬영중인 경기도 고양시 탄현 드라마 세트장에 커피와 간식 등을 실은 ‘간식 차량’을 보냈다. ‘나의 오빠 (유)아인과 나의 동생 (신)세경을 응원합니다!’라는 응원 문구까지 직접 썼다. 유아인과는 영화 ‘사도’에서 사도세자와 혜경궁 홍씨로 호흡을 맞춘 바 있다.

문근영이 현재 자신이 주연한 SBS 수목드라마 ‘마을-아치아라의 비밀’ 막바지 촬영으로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음에도 신세경을 위해 애정 어린 ‘선물’을 보낸 터라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이에 신세경은 문근영에게 고마움을 전달한 방법을 찾고 있다.

두 사람이 비슷한 시기에 각각 SBS 월화, 수목 드라마 주연을 맡게 되면서 SNS를 통해 서로의 드라마를 홍보해주는 등 서포터 역할까지 해주고 있어 촬영현장에서 두 사람의 만남이 성사될 가능성도 있다.

소속사 관계자는 26일 “두 사람이 영화 ‘어린 신부’에 함께 출연했고, 아역으로 데뷔한 공통점이 있다보니 서로를 누구보다 잘 이해한다. 연기에 대한 고민이나 조언 등을 해주며 각별하게 챙기고 있다”면서 “또 각자의 SNS를 통해 서로에 대한 응원을 끊임없이 보내고 있어 드라마 홍보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문근영이 보낸 간식차량의 커피를 마시고 있는 신세경. 사진출처 | 신세경 인스타그램

스타, 그때 이런 일이 〈1999년 11월 27일〉

100회 맞은 ‘사랑의 리퀘스트’ 2년간 총 147억원 온정의 손길



2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 ‘사랑의 온도탑’이 세워졌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관하는 ‘사랑의 온도탑’은 연말연시 어려운 이웃돕기 모금을 위한 ‘희망 2016 나눔캠페인’의 상징이다. 내년 1월31일까지 펼쳐지는 캠페인의 모금 목표액은 3430억원. ‘사랑의 온도탑’은 목표액의 1%에 해당하는 34억3000만원이 모금될 때마다 1도씩 수은주를 올려 목표액을 달성하면 100도가 된다. 지난해 수은주는 100.5도를 가리켰다. 사람들은 수은주의 온도를 살피며 세상인심을 읽기도 한다.

모두가 힘겨웠던 IMF 외환위기의 한파 속에서도 따뜻한 세상인심을 느끼게 한 방송 프로그램이 있었다. KBS의 ‘사랑의 리퀘스트(사진)’로, 1999년 오늘 100회를 맞았다.

‘사랑의 리퀘스트’는 어려운 환경에 놓인 이웃들의 사연을 소개하고 연예인 등 유명인들이 찾아가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동시에 시청자들의 모금 참여로 이뤄지는 프로그램. 금요일이었던 1997년 10월24일 KBS 2TV ‘사랑의 리퀘스트-따르릉! 천원입니다’로 시작해 자동응답음성의 안내에 따라 번호를 누르면 1000원(현재는 2000원)이 부과되는 ARS 전화서비스를 이용한 모금을 진행했다. 당시 10대 급성백혈병 환자의 사연을 소개해 50분 동안 11만통, 1억1000만원을 모았다. 초대 MC 이계진 전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임창정과 녹색지대가 출연했고, 지누션은 자신들의 팬인 해당 환자를 직접 찾아가 만났다. 이듬해 1월부터 1TV와 토요일 오후 7시대로 옮아간 프로그램은 100회까지 147억원을 모았다.

모금에 앞장선 이들은 연예인이었다. 100회까지 모두 330명의 유명인이 출연한 가운데 250명이 연예스타들이었다. 그 중 그룹 젝스키스가 17번 출연해 가장 많은 온정을 전했다. 미스코리아 출신 연기자 설수진(11회), 설운도와 핑클(10회), 임창정(9회) 등이 그 뒤를 이었다. 2010년 600회 특집을 위해 아이유와 유승호가 입을 모아 ‘사랑을 믿어요’라는 노래를 소개해 음원으로 출시하기도 했다.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도 재임 중 출연해 이웃돕기를 호소했다.

최동석·백승주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28일 779회를 맞는 ‘사랑의 리퀘스트’는 이계진 이후 이금희, 왕종근, 손범수, 황현정, 김재원, 정세진 등 많은 아나운서가 MC로 나섰다. 프로그램 홈페이지에 따르면 1997년 첫 방송 이후 현재까지 830억7100여만원을 모금해 4만5429명의 이웃을 도왔다. 눈길을 끄는 것은 IMF시절이었던 1998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평균 모금액이 최근 3~4년 치보다 두 배 가까이 많다는 점이다.

26일 오후 현재 ‘사랑의 온도탑’의 수은주는 11.7도를 가리키는 중이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